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신형철 문학평론가·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세상에는 영화보다 중요한 것이 많지만 영화보다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영화들도 세상에는 있다. 김성수 감독의 영화 '아수라'는 천국의 장인이 건설한 지옥이다. 최상의 연출력을 알겠으나 결코 두 번은 볼 자신이 없다. 이 영화가 재현하는 폭력을 나는 견뎌 내기 어려웠다.

특히 피식자가 피식자에게 일방적으로 가하는 폭력의 사정각적 자극을 이 영화는 마치 제의를 치르듯 준엄하게 쏟아붓는다. 초반부에 경찰 한도경이 자신의 꼬나폴에게 퍼붓는 폭력과 중반부에 검찰 수사관이 한도경에게 가하는 폭력이 대 표적이다.) 그들은 때리고 때리고 또 때린다. 이 영화에서 '때리다'는 동사가 아니

절망을 즐기지 않기 위하여

라 형용사 같다. '폭력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있을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폭력적인 것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때 떠올려야 할 말이다. 이 영화의 폭력이 내게는 아름답지 않았고 고통스러웠다. 고통스러운 폭력을 계속 감내하고 있다 보면, 그리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 이 영화를 보면서 경험한 일 중 하나가 그것이다.

스크린 속에서 행사되는 폭력을 보면서 정작 내가 보고 있었던 것은 나 자신이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왜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가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 타인의 고통을 구경하고 있는 것인가. 어떠한 쾌락도 없이, 스스로 고통을 당하면서.

영화의 관객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그 자체로 옳거나 그르진 않으리라. 문학도 마찬가지다. 피해서는 안 되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안다. 최근 나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본질을 집요하게 재현하는 한 소설가에게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런 문장을 적기도 했다. "'예술은 현실의 재현'이라는 유서 깊은 논의에서, '재현'이란 현상의 복사가 아니라 본질의 장악이다. 남

길 것과 지을 것을 선택하는 지성이 필요 한 일이다. 또 독자에게 고통을 전이시켜야 한다. 세상이 고통스럽다고, 고통스럽게 말해야 한다. 그것 없이는 인지의 충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질의 장악'의 부산물이자 '인지의 충격'의 유발 자로서의 고통, 그것은 옳다.

그러나 '아수라'가 그렇다고 말하기는 주저됐다. 인터뷰를 보니 감독의 취지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이런 폭력성이 한국사회의 본질이

기 때문에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본질의 장악'), 실상을 충격적으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시각적으로나 장각적으로 가장 강한 자극을 가했다는 것('인지의 충격'). 그러나 이렇게 반문해야 한다. 이 영화는 우리가 미처 서 있어 본적이 없는 어떤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서 그곳에서만 보이는 한국사회의 본질을 볼 수 있게 하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때 화면에서 재현·생성되는 저 폭력과 고통은 도대체 누구를 또 무엇을 위한 것일까?

'아수라'가 이런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아수라'는 한국영화가 오랫동안 한국사회의 본질을 포착하기 위해 사용해 온 인식의 프레임(영화 제

목을 빌리자면 '내부자들'의 '부당거래'로 굴러가는 대한민국)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다. 영화의 공간적 배경이 바뀐다 한들 인식의 거점이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인식이 생성되지 않는다. 그 대신 폭력은 더 과감해졌고 고통은 더 끔찍해졌다. 심화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 영역이 정체되지 다른 영역이 과잉 심화된 경우가 아닌가. 요컨대 '본질의 (새로운) 장악'이 없는 곳에서 도모되는 '인지의 (강화된) 충격'이란 공허할 뿐 아니라 부당한 것이다.

어두운 극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앉아,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는 어느 인간의 고통을 관람하면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세상은 지옥이었고 지옥이며 지옥일 것이라는 점만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일까.

이제 우리는 도무지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지옥의 엔터테인먼트를 발명하고 체념을 쾌락으로 바꾸는 법을 연습하고 있는 것일까. 정당한 절망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오래 반복되면 기묘한 향락이 된다. 우리는 허황된 희망과도 싸워야 하지만 즐거운 절망과도 싸워야 하지 않을까.

社說

수십억 들인 배 유통센터 창고로 쓰인다니

나주배원예농협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종매인들의 개인저장고 등으로 전락했다고 한다. 특히 유통센터 내 선과장(選果場)은 준공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선과설비조차 갖추지 못한 채 자재창고 등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지난 2014년 국비 포함 지원금 9억 원과 자부담 6억 원 등 총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나주농산물공판장 부지 내에 저온저장고와 선과장을 갖춰 준공됐다. 이 같은 시설은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이다.

당초 건립 취지는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배를 공동선별 후 곧바로 공판장에 출하해 신선도 유지와 유통비용 절감 등 물류 개선 효과를 기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건립된 지 3년이 지났으나 물류 개선 개혁은커녕 종매인들의 개인 창고로 편법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저온저장고는 저온상태로 신선하게

유통하는 '콜드체인시스템' 기능을 수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부 종매인들의 개인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배를 선별해야 하는 선과장도 선과라인 조차 설치되지 않은 등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소규모 공판장과 자재창고로 전락했다.

이에 대해 배원협 관계자는 "선과장은 원협에서 선별하는 것보다 개별농가에서 하는 것이 제품 단가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러려면 애초 이런 시설에 뭐 하러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였나 하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저온저장고와 선과장을 종매인에게 돈을 받고 임대해 주거나 자재창고로 편법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법적으로도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위법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당국은 빠른 시일 내에 유통센터가 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 드러난다면 법률에 따라 환수해야 할 것이다.

소음 피해 고려 않고 아파트 허가 내주었다

도심 공동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광주 동구청이 입주 예정인 아파트의 소음 피해를 검토하지 않고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었다며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사나 주택재개발조합 측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이라서 논란만 커지고 있다.

무동산 아이파크 일반분양 입주 예정자 420여 세대는 옛것제 남광주교대로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 터널 설치, 안전교차로 설치, 입주 전 공동주택폭발 검수 등 민원을 제기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11개 동 중 4개 동이 남광주교대로와 인접해 있어 소음 피해가 발생한다며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동구청이 아이파크와 인접한 고가도로의 소음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내 방음벽 설치 조건만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내렸고, 이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

다고 주장한다. 입주민들은 동구청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까지 고려중이다.

문제는 남광주교대로도 소음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동구청이 사업시행인가 4년이 지나서야 시행사인 학동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행사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인 방음벽 설치 기준만 만족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시공사 측은 남광주교대로에 방음터널을 설치하려면 200억 원 규모의 노후시설 보강공사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고가로도 방음벽은 차량 사고 위험도 높고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동구청은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살펴서 시공·시행사와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종교칼럼

목적은 버려야 목적에 다다른다



정세완 원불교 동성교당 교무

적이 있습니다. 만다라는 진리의 세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만다라는 뜻이 본질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사각의 틀 안에 원으로 표현됩니다. 곧 부처님의 세계가 만다라인 것입니다. 어렵게 만다라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이미 완성된 만다라는 더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처님을 만났다는 상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를 지우는 것입니다.

또 그 영화를 보면 티벳의 사람들이 오막막한 한 채를 짓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삼 살 삼 뜨면 거기에 지렁이들을 손으로 다 집어냅니다. 또 지렁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고 없으면 조심해서 한 삼을 뜹니다. 그리고 집어낸 지렁이들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 줍니다.

이것을 본 서양인이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언제 집을 짓습니까?" 물어 보니 티벳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반문을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거나? 집을 짓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냐는 반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

의 만다라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만다라를 완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다라를 만드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인생입니다. 완성된 만다라를 지우는 작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열반입니다. 완성된 만다라는 공을 의미합니다. 만다라의 아름다움이 바로 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만다라에 집착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육신은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해야 합니다. 만다라의 화려한 존재성이 본질이 아니고 그것을 만드는 인내가 바로 만다라의 본질인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 과정이 바로 부처를 만나고 내 자신이 부처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고통과 인내로 인해 행복의 꽃이 만들어 지는 것이 인생의 과정입니다. 내 모습을 고요히 비추보면 결과만 보고 과정을 무시하는 나의 허물이 보입니다. 또한 행복은 좋아하고 고통과 인내는 싫어하는 나의 과오가 보입니다.

저 자연을 보시오. 봄, 여름에 씨 싹을 돋고 꽃을 피우고 가을엔 열매를 맺고 겨울엔 그 잎과 열매를 다 떨고 나무 본래

의 모습으로 되돌아옵니다. 만다라를 지우듯 말입니다. 또한 가을의 나무들은 물안의 수분을 다 배출합니다. 추운 겨울에 물 안에 수분이 많으면 얼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을 계곡의 물은 더욱 더 맑습니다. 우리네 인생 역시 버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그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내야 합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대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편리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물질은 우리가 잠시 쓰고 가는 것이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소유했어도 가지고 있다는 상이 없어야 하고 마음이 거기에 묶이지 아니해야 자유스러움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상처가 많은 나무가 아름다운 무늬를 남기듯, 목적을 버려야 목적에 도달 할 수 있습니다. 허공 같은 마음으로 이 가을에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보시고 부처님의 마음으로 축복받는 가을되시기를 심축합니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고

문화전당 돌레길, 문화혈관으로 가꾸자



김인천 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

있는 도심을 살리기 위해 산발적으로 문화예술 행사만 치를 뿐, 연중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을 창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산업 흥보, 지역이미지 개선에도 역할을 해 줄만한 도심 속 관광자원과 명소는 보기 드물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나 그 시대와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 그 지역 문화를 느끼고 싶어 꼭 방문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광주는 어떠한가. 예향의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그동안 문화적 명소가 없어 늘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했다. 이제 문화로 먹고사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시민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도심의 활력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민선6기 들어 지역미래를 위한 문화벨리를 시정의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문화전당을 거점으로 도심생명이 싹터오는 문화뒷밭을 만들기 위해 실타래처럼 흩어진 문화관광자원을 엮어서 '문화전당 돌레길'을 조성하고 있다. 쉽게 표현해서 문화전당이 '점'이라면 이제는 그 점들을 연결해 선을 만들고, 선들이 이어 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화전당 돌레길'은 문화전당을 돌레로 공연, 예술, 역사, 푸른길, 카페거리 등 문화예술의 창작과 유통이 어우러지는 활력있는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 문화전당이 문화중심도시의 심장이라면 혈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매력적인 문화공간인 대인예술시장, 예술의 거리, 금남로 프린지페스티벌, 동명동 카페거리, 남구 푸른길공원,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을 잇는 돌레길을 만들어 국내·외 방문객이 광주에 가면 볼거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런 좋은 문화예술적 자산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을 유인할 흡인력과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매일 둘째, 넷째주 토요일 '광주 문화 절정체험 오매! 광주' 슬로건으로 금남로,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버스킹, 예술행, 먹거리 장터 등 각종 즐길거리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 등 시민과 함께 문화광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내년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협업해 ACC-광주 인터내셔널 프린지 페스티벌을 공동개최, 영국 에든버러 축제에 버금가는 아시아 대표축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대인시장은 매주 토요일 상설 예술시장을 개장해 예술가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전통시장의 상설된 기능을 예

를 통해 전통시장의 상설된 기능을 예술로 부활시켜 시민들러 및 상인 일자리 창출·소득증대는 물론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자원으로 성장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시간대에 열리는 '나비야 공동가자' 행사는 예술의 거리나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40여개의 문화예술 체험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술의 거리에 입주해 있는 상점을 홍보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행사 날 매출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문화전당 돌레길도 점차 인소문을 타면서 지난 9월 말 현재 방문객 56만1000명이 찾아 광주의 문화에 흠뻑 빠지는 등 전국적인 문화명소로 자리매김 해나가고 있다. '문화'는 인류가 피워내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정치, 경제, 과학도 결국은 문화의 꽃으로 피어나고, 이제 문화는 향유의 개념을 넘어 후손들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산업, 일자리, 먹거리가 되고 있다.

우리는 광주 문화의 혈관인 문화전당 돌레길이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그래야만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고 세계적 명품 관광명소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等鼓 (No-eung-gu) advertisement for the 2016 Nobel Prize. It features a large red seal and text in Korean and English. The text discusses the Nobel Prize, the role of the Kwangju branch, and the award ceremony.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Kwangju branch and the Seoul office.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G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ax numbers, and email addresses for various departments and offices.